



즉시 배포용: 2017 년 12 월 14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미국 퇴직자 협회(AARP)와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뉴욕을 미국 최초의 노령 친화적인 주로 지정했다고 발표

2017 년에 미국 상위 10 위 안에 든 뉴욕의 전반적인 건강 상황

모든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향상시키려는 주지사의 활동을 지지하는 지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미국 퇴직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와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가 뉴욕을 미국 최초의 노령 친화적인 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성과는 주정부 기관의 정책 결정과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을 위해 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고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자신 집에서 편안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건강을 포함시키려는 주지사 지시의 결과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행정부는 고령층의 고유한 요구를 지원하고 모든 뉴욕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에게 건강과 웰빙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개발 활동을 계속 지원함에 따라, 우리는 미국에서 최초의 노령 친화적인 주로 뉴욕을 지정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단체 두 곳에서 인정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정을 받기 위해, 뉴욕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세계 보건 기구(WHO) 및 미국 퇴직자 협회(AARP)가 제시한 8 개의 노령 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옥외 공간 및 건물,
- 교통,
- 주택,
- 사회 참여,
- 존경과 사회적 포용,
- 노동과 시민 참여,
- 통신과 정보,

- 지역사회와 의료 서비스.

뉴욕은 또한 건강을 위해 미국에서 상위 10 개 주 순위 안에 들었습니다. 이는 1990 년의 40 번째로 건강한 주에서 순위가 오른 결과입니다. 이는 2017 년 미국의 건강 랭킹 [보고서](#)(Health Rankings report)에서 전체 50 개주가 얻은 5 년 만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노령 친화적인 주가 되기 위한 활동은 주지사의 새로운 모든 정책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Health Across All Policies initiative)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건강한 노령화가 주정부 기관의 의사 결정에 반영되도록 2017 년 시정 방침(State of the State)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다섯 가지 우선 과제 분야에서 모든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청사진인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예방 어젠다](#)(Prevention Agenda)의 목표를 활용합니다. 비만 및 당뇨병의 감소, 환경 건강의 개선, 정신 건강 서비스의 향상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목표의 달성은 야외 공간 및 건강식품에 대한 접근, 교육, 주택, 직업 개선과 같은 의료 서비스 이외의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17 년의 시정 방침(State of the State)에서, Cuomo 주지사는 주정부 기관들에게 최초의 노령 친화적인 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그 성과와 함께 베이비 붐 세대가 왜 뉴욕주에 머무르고 뉴욕주로 이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미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활동적인 봉사 단체 중 하나와 파트너가 되어서 보여줍니다. 미국 전 지역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노령 친화적인 지자체로 지정은 받았지만 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 어떤 주도 그러한 명예로운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노령 친화적인 주가 되기 위한 장족의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2012 년 이후,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과 뉴욕주 주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State)는 뉴욕주 전 지역에서 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는 [살고 싶은 뉴욕 프로그램](#)(Livable New York Initiative)에 협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기관의 노력으로 거주 적합성 및 이동성 개선에 관한 계획 결정을 모색할 때 지자체를 안내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자원 설명서가 만들어졌습니다.

2017 년에 주지사는 미국 최초로 뉴욕주 전 지역에서 건강과 웰빙, 주택, 교통 옵션, 기타 등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가치가 큰 지역 자원과 서비스에 고령자와 그 보호자를 연결해 주는 [노령화 서비스 모바일 앱](#)(aging services mobile app)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의 노령화 서비스 앱(Aging Services app)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이 노령층 뉴욕 주민의 건강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사회에 그들이 연결되도록 돕기 위해 노령층의 뉴욕 주민들 손에 전달됩니다.

Cuomo 주지사의 100 억 달러 규모의 하우스 뉴욕 2020(House NY 2020) 공약의 일환으로, 2011 년부터 뉴욕주 주택 및 지역사회 갱생부(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에 의해 8,659 가구의 저렴한 주택이 이미 고령자들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 중 1,270 가구는 하우스 뉴욕 2020(House NY 2020)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 계획은 2020 년 말까지 뉴욕주 전 지역에서 10 만 가구가 넘는 저렴한 주택을 짓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지사는 2016 년과 2017 년에 제 1 단계와 제 2 단계로 나누어 주정부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의 일환으로 지역 10 곳의 다운타운 지역에 1,000 만 달러의 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많은 신청서에는 복합 용도 공간의 존재, 다양한 수준의 저렴한 주택, 모든 연령층의 주민들을 위한 건강한 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걷기 쉽고 자전거를 타기 쉬운 거리 등 다운타운 지역사회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 및 활성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10 개의 지역별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협동 관리 콘퍼런스(reg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conference)가 노령 친화적인 지역사회로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계획 및 인증의 이점을 논의하기 위해 작년에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사회 개발 전문가, 지역 선출직 공무원, 비즈니스 리더들이 한 곳에 모여 공동 작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콘퍼런스의 절정은 주정부 보조금 및 프로그램을 위한 원 스톱 자원의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 및 비영리 단체를 위한 [안내서\(handbook\)](#)의 발간이었습니다.

미국 퇴직자 협회(AARP)의 프로그램 담당 **Jean Setzfand** 선임 부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다른 주들에게 그 길을 제시하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미국 퇴직자 협회 (AARP)의 **Beth Finkel** 뉴욕주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퇴직자 협회의 뉴욕 지부(AARP New York)는 우리가 미국에서 노령 친화적인 네트워크(Age-Friendly Network)로 인정받게 된 첫 번째 주가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위대한 비전, 예지력, 리더십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지사님의 조치는 우리의 모든 지역사회가 50 세 이상의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뉴욕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더 많은 버스 정류소와 벤치, 더 개선된 보도 및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 조부모가 근무 시간 중에 손주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원 등과 같이 뉴욕주 전 지역에서 개선된 사항들은 모든 세대에게 이익이 됩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Howard Zucker**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모든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이 시기에 진실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노령 친화적인 주가 됨으로써,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으며 건강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미국 전 지역의 주에 영감을 주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을 모든 연령층의 주민들을 위해 가장 건강한 주로 만드는 방법의 또 다른 사례입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의 **Greg Olsen** 국장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이 뉴욕을 최초의 노령 친화적인 주로 만들기 위해 보여주신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노령층의 뉴욕 주민들은 시민 참여, 고용, 관광산업 등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적으로 기여하면서 자신의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기 적합하고 스마트 성장의 원리를 이해하고 채택하는 지역사회는 새로운 주민을 유치하고 기존 주민을 유지하여 모든 연령대의 주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입니다.”

뉴욕주 주무부의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모든 연령층의 주민들을 위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의 선봉에서 뉴욕을 안정시켜 왔습니다. 저희는 미국 퇴직자 협회(AARP)와 세계 보건 기구(WHO)가 뉴욕주를 미국 최초의 공식적인 노령 친화적인 인증을 받은 주로 인정함에 대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지사님의 다운타운 활성화 계획(Downtown Revitalization Initiative, DRI)은 주정부의 살기 좋은 지역사회 접근 방식의 주요 구성 요소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과 프로그램의 목표는 모든 뉴욕 주민들, 특히 도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노령층과 밀레니엄 세대들에게 매력적인 레크리에이션, 문화, 취업 등의 기회가 있는 다운타운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입니다.”

노령화에 대한 뉴욕주 하원위원회(Assembly Committee on Aging)의 의장인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노령 친화적인 주가 된 뉴욕에 대한 주지사님의 공약에 대단히 기쁩니다. 이 지정은 우리 주민들 모두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 주가 얼마나 진보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뉴욕주의 모든 지역에서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지사님과 주의회의 동료 의원님들과 계속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주민의 노령화에 직면함에 따라, 미국 퇴직자 협회(AARP)와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보다 노령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퇴직자 협회의 [노령 친화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Network of Age-Friendly Communities\)](#)는 주, 도시, 타운, 카운티 등이 고령자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을 권장합니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고령자 주민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지침인 [“8 가지 거주 영역\(8 Domains of Livability\)”](#)을 개발했습니다. 이 영역에는 (i) 시민 참여와 고용, (ii) 존경과 사회적 포용, (iii) 통신과 정보 이용 가능성 등이 포함됩니다.

###